

발작물 수급안정기금 3년 뒤 사라지나

2022년까지 한시적 운영... 시한 넘기면 자동폐기 도 "조례 개정 검토·유사기금 등 기금 준치 노력"

발작물 수급 안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발작물수급 가격안정기금'의 일몰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한 연장 검토가 이뤄지고 있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발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은 2013년 제정된 '제주도 발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 2015년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다.

기금 목적은 발작물의 과잉 생산, 재해 발생 등 비상상황에 지원해 농

가의 경영 안정과 지속적인 발작물 영농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문제는 기금 설치가 한시적이라는 데 있다. 조례의 부칙 제2조를 보면 유효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정돼 있다. 이 시한을 넘기면 기금은 자동 폐기될 수 있다.

제주도는 기금 목표액을 300억원으로 정하고,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에서 연차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2016년 30억원, 2017년 32억원, 지난해 30억원, 올해 30억원 등 4년간 총 122억원이 조성됐다.

기금 집행액은 지난해 말 기준 35억6000만원이다. 연도별, 품목별로 보면 2016년 당근 등 3개 품목에 5억5600만원, 2017년 고구마 등 3개 품목에 15억8100만원, 지난해 양배추 등 4개 품목에 14억2300만원 등이 투입됐다. 기금은 주로 발작물 수급안정사업, 제주형 자조금 적립사업 등 기금 목적사업에 사용됐다.

제주도는 올해도 월동채소 등 수급안정사업 등에 기금을 활용할 예정이며, 연말에는 85억원의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제주도는 발작물의 수급 조절 기능 강화와 농작물 시장 가격 지지 등 조례의 고유한 기능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조례의 부칙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발

작물은 기후에 따라 생산량이 변하는 민감한 품목인데다, 시장가격의 등락도 심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발작물 수급안정화로 적정가격을 유지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제주도는 조례 개정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차선으로 농어촌진흥기금 등 유사기금 통합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3년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갖고 조례 개정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예산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유사기금 통합도 고려하고 있다. 기금이 존치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여름에도 코스모스 활짝 17일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향파리리 인근에 핀 코스모스를 배경으로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상반기 여권발급 3.6% 감소 유입인구 증가 둔화세 반영

제주특별자치도는 올 상반기 도내 여권발급 신청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올 상반기 도내 발급여권 수는 총 2만9936건(도 2만3762건·서귀포 6174건)으로 지난해 상반기(3만1046건)에 비해 1110건(3.6%) 감소했다.

이 중 50대 이상 중장년층 발급건수는 전년도 8797건에 비해 684건 증가한 9481건으로, 최근 늘어난 중장년층 단체 및 가족여행객 증가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5년간 상반기 여권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1만8624건, 2016년 2만5514건, 2017년 3만2270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8년 3만1046건으로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최근 3년 새 유입인구 증가 둔화세가 뚜렷한 인구 유동성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다.

평일 관광객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등을 위해 매주 월요일 오후6시부터 8시까지 운영하는 '월요 야간민원실' 이용 건수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지난 7월부터는 장애정도에 상관없이 본인이 희망할 경우 모든 시각장애인에게 전자여권 발급이 가능해졌다.

조성윤기자 sycho@ihalla.com

서귀포시 직영관광지 관람 만족도 물어보니...

"20~40대 개별여행객 겨냥 이벤트 필요"

대체로 만족... 편의시설 낮아 방문객 절반이상 소그룹 단위

서귀포시 직영관광지를 찾은 여행객 만족도가 대체적으로 높지만 편의시설 관련 만족도는 가장 낮아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방문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30~40대 개별 여행객을 겨냥한 다양한 이벤트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귀포시는 주상절리, 용머리해

안, 천지연폭포 등 5개 직영관광지 방문객 중 모바일 스탬프투어에 참여한 738명을 대상으로 한 '상반기 직영관광지 관람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17일 내놨다.

모바일 스탬프투어는 재방문 유도 및 홍보 유발을 위해 지난 3~6월 관광지 5곳 중 3곳 이상을 관람해 '제이스탬프' 앱에 디지털 스탬프를 찍으면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로 지난해 1330명, 올해는 3392명이 참여해 좋은 반응을 보였다.

조사 결과 5곳의 관광지 평균 만족도가 4.42점(5점 만점) 전반적으로 양호했고, 재방문 의향은 97%로 나타났다. 세부항목별로는 '주차장 이용 편리'가 4.52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편의시설(휴게실·벤치)'에 대한 만족도는 4.33점으로 가장 낮아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방문객의 연령대는 40대가 26.8%로 가장 많고 이어 30대 26.5%, 20대 20.5%로 20~40대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일행 수는 4명(28.3%), 2명(25.0%), 3명(16.9%), 1명(10.8%) 순으로 20~40대 소그룹 여행객을 겨냥한 지속적인 이벤트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2019 제주애 빠지다 ② 노형꿈틀작은도서관

동네 도서관이 들려주는 다문화이야기

도서관 내 '올리블리관' 세계 문화 그려낸 공간 서울 이어 국내 2호관 다양한 세상 소통 창구



지난 2011년 노형꿈틀작은도서관 내에 조성한 '올리블리관' 개관식 모습.

제주지역 다문화가정이 지난해를 기준으로 4000가구를 넘어섰다. 다문화가정을 이루는 결혼 이주여성, 그 자녀들이 제주사회에 적응·정착하기 위해선 이들이 제주의 문화, 풍습 등을 잘 습득할 수 있게 안팎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주도민들이 이들의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진정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제주 공동체를 꾸릴 수 있다.

노형꿈틀작은도서관은 일반인들이 흔히 알고 있는 도서관을 비치해 읽을 수 있는 공간적 개념에 그치지 않는다.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사업도 펼치고 있다. 2008년 개관과 동시에 출범한 꿈틀사랑봉사회는 도서관을 찾는 아이들을 위한 동화구연, 견학 프로그램 등을 도맡고 있다. 2009년에는 도내 최초로 다른 지역 도서관에 찾아가 1박2일 독서캠프를 하는 도서관 습격사건이라는 프로그램을 했다. 이후 매년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도서관 문화다변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올리블리'는 다양하다는 의미를 상징하는 올록볼록이라는 표현에서 착안한 것이다. 올리블리관을 찾는 어린이들은 42인치 LED TV 등을 통해 '올리블리 그림동화'를 감상할 수 있다.

올리블리 그림동화는 몽골,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태국, 필리핀, 티베트, 르완다 등 세계 문화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다. 다문화 수용성은 어릴 때 길러야 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올리블리관을 상징하는 캐릭터도 '서로 다름'을 표현하고 있는데 '올리'는 덩치가 크고 '블리'는 작다.

노형꿈틀작은도서관에 들어선 올리블리관은 국내 2호관이다. 2010년 서울 다문화 도서관 모두에 1호관이 들어선 후 2호관이 제주에 등지를 들었다.

오선심 노형꿈틀작은도서관 사서는 "다음세대재단이 올리블리관을 조성할 도서관들을 찾으러 사방팔방 돌아다닐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곳을 운영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면서 "어린이들이 다양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노형꿈틀작은도서관은 여기에 더해 아이들에게 제주 고유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올리블리 그림동화

에 제주 돌담 이야기를 담았다.

노형꿈틀작은도서관은 일반인들이 흔히 알고 있는 도서관을 비치해 읽을 수 있는 공간적 개념에 그치지 않는다.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사업도 펼치고 있다. 2008년 개관과 동시에 출범한 꿈틀사랑봉사회는 도서관을 찾는 아이들을 위한 동화구연, 견학 프로그램 등을 도맡고 있다. 2009년에는 도내 최초로 다른 지역 도서관에 찾아가 1박2일 독서캠프를 하는 도서관 습격사건이라는 프로그램을 했다. 이후 매년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도서관 문화다변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정기연주회를 개최하며 통기타 선율을 선사하는 올랄라 통기타 동아리, 손인형극을 선보이는 출렁생이극단, 도서관에 인연이 있는 남녕고등학교 학생들이 구성돼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과학 원리를 가르치는 S.T동아리 등 다수의 재능기부 형태 동아리를 운영하는 곳도 노형꿈틀작은도서관이다. 지역민의 자발적 참여를 토대로 지역 공헌을 이끌어 내고 주민을 하나로 묶는 것이 노형꿈틀도서관의 본연의 역할이다.

8월에는 색다른 행사를 준비중이라고 한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자도에서 마을 만들기총합지원센터, 출렁생이극단과 함께 '섬속의 작은 도서관 독서캠프'를 운영할 예정이다. 부속도서관 추자도 정착 주민들이 문화향유 기회에서 소외받는 점을 감안해 손 인형극, 어르신과 함께하는 비누 공작소, 공연, 추자도 스토리텔링 콘텐츠 제작 등의 프로그램을 펼친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진정한 흙의 보약 "페르카칼슘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한번의 시비로 비료와 흙과 수분반응에 의한 농약성분 뿌리혹병, 잡초경감, 균핵병, 회색곰팡이병, 흑색썩음균핵병, 역병, 모잘룩병, 시들음병, 달팽이사멸, 각따귀, 날파리류, 곰팡이병살균, 방제

페르카의 제반효과 비료대(평) 100-500원

- 잡초의 경감
- N20 오랜 기간 지속되는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 높은 저장성
-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 강력한 라임효과
- 뿌리혹병의 경감
-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사용 기준 25K - 1포 (100~500평)사용

취급 품목 4종복비, 유기질비료(친환경제품), 1등급가공발효계분퇴비, 유황비료

관주 염면 시비용 맥반석, 게르마늄, 황금수, 흙향기

밭, 과수, 골프장, 목초지, 전작물 사용 농경비 30% 절감 + α
연작장애, 토양소독, 석회투입 NO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745-8900, H.P: 010-9258-7508

방수

- 폴리우레아방수 -

- ◆ 지붕, 옥상 방수 및 도장공사
- ◆ 축사, 냉동창고, 양식장, 수영장 방수
- ◆ 저수조, 하수처리장 내·외벽 방수
- ◆ 물탱크, 원유저장탱크, 주유소 바닥 코팅
- ◆ 수도관, 가스관 등 각종 강관 코팅
- ◆ 철재 부식 코팅, 아파트 주차장 바닥
- ◆ 산업용시설물, 발전소, 학교, 관공서 옥상
- ◆ 구조물의 모든 부위 방수, 콘크리트 부식 방지
- ◆ SMC, FRP 물탱크 제작, 수리

A/S기간 : 3년 보장

주식회사 내쇼날건업
내쇼날 FRP 페인트 총판

- 방수, 도장 전문건설업, 여성기업 -

TEL: 064-727-9800 H.P: 010-3699-4850
FAX: 064-753-8850 010-3211-0218
national90@naver.com

친환경 전통건축 [한옥에서의 건강한 삶]

선자연

이 실현합니다.

시공

- 전통건축(살림집, 사찰)
- 전원주택 시공 및 리모델링
- 전통 구들 시공
- 문화재청 등록 [문화재수리기술자] 직접 시공
- 전통건축 대목이 직접 시공참여 기술지도
- 나무, 흙, 돌 등 천연재료를 사용한 친환경 건축
- 제주 전통건축 양식 및 기후 반영한 설계 시공
- 품질 우선 시공, 합리적인 건축비

상담 : 010-5308-5796, 064-764-0488

전통한옥문화재사랑 선자연